

# 보안사 5·18사진 공개 큰 관심...민간공원 심층보도 눈길

## 광주일보 제9기 독자위원회 회의

11월 26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

광주일보 제9기 3차 독자위원회가 지난 26일 광주일보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장필수 편집부국장 겸 김윤하 독자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석, 강철성, 신일섭, 이철갑, 진용태, 최선희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광주 폴리 공문화 돋보여  
최종기사 세밀한 검토 필요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내고향 농촌' 지역 민심 대변  
부동산기사 투기조장 우려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



'굿모닝 예방' 시리즈 인상적  
지방 체육 소식 더 많았으면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  
복지문제 기고 현장감 살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1면 '사건 아닌 이슈' 잘 제시  
광주전남 상생 집중 보도 필요

진용태 광주시변호사회 제1부회장



문화·예술·인문학 기사 유의  
예산 관련 기사 시의적절

최선희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



칼럼·기획 기사 강점  
중앙선데이와 콜라보 좋아



광주일보 독자위원들이 지난 26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김윤하 위원장 주재로 독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윤하= 올 하반기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대통령령의 국민과의 대화, 여야 정치인의 잇따른 총선 불출마 선언,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 등 정치권에서 굵직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수돗물 이물질 검출, 국정감사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기간 중 광주일보는 한발 더 빠르고, 한발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보다 유익한 보도를 내 시선을 모았다.

'보안사, 5·18사진 1769장 공개한다-광주일보 기자들에 압수한 사진 포함' <11월 15일자 1면> 기사는 옛 기무사령부가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한 5·18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으로, 타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서울발 단독 기사였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독자의 큰 관심을 모은 기사였다.

'시정 말 한마디에 기로에 선 광주폴리' <10월 29일자 1면> 기사는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폴리 사업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아쉬움을 표하고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사로, 시정에 대한 균형을 갖춘 지적기사였다.

기획기사는 '도시 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이 단연 시선을 끌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다양한 디자인의 도시 모습과 건물, 지하철 등은 한번쯤 꼭 가고싶다 느낄 만큼 사진, 기사 구성이 돋보였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 문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나온 기사들이 보이는 등 최종 기사 검토 과정의 허של함이 드러나 아쉬웠다. 바쁜 업무 중 발생한 실수로 보이지만, 세심한 검토를 부탁한다.

◇이철갑=광주일보는 1면 기사들을 단순한 사건 기사가 아니라 이슈를 위주로 잘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광주 금동 인쇄거리 재개발 아파트 신축' <11월 25일자 14면> 기사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단순히 아파트를 홍보하는 기사가 돼 버렸다. 재개발 지역에 39층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건 조망권이나 문화전당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층 높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보도해 줬으면 한다. 또 광주-전남 상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 광주 군 공항 문제로 두 번의 1면(연속) 보도가 있었는데, 광주-전남은 서로 상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왜 작은 일로 경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 같은 화합·상생의 문제가 쉽게 조정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

해 자치단체장이 문제인지, 주민이 문제인지 밝혀내 줬으면 한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 처한 만큼 광주-전남이 한 경제 단위로 갈 수 있도록 협조가 잘 됐으면 한다.

이밖에도 최근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이 알 수 없어 불편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서 공문화 했으면 한다.

◇강대석='내고향 농촌'이 울고 있다 <10월 25일자 1면> 기사는 지역 대표 언론답게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이슈를 잘 기사화한 사례였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촌이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된 문제를 잘 파악한 심층보도였다. 'WTO 개도국 지위 철회... 전남 쌀-양파-마늘 직격탄' <11월 25일자 5면> 기사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깊이 있게 다뤘다. 이렇듯 지역 민심을 담은 기사를 1-2회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사화해 정부 등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 관련해 '힘겨운 민주화의 길...1980광주와 2019홍콩의 잔혹한 님은 꼴' <11월 20일자 1면> 기사와 사진의 비교는 많은 공감을 줬다. 같은 면 '5·18 아시아 민주화의 교과서 됐다'는 기사는 홍콩 등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가에게 5·18이 교과서로서 대물림된다는 내용으로, 큰 가르침을 주는 기사는 물론 사진 구성, 편집 면에서 돋보였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해 '광주 아파트 분양가 전국 최고 폭등' <11월 18일자 14면> 보도는 자칫 투기 심리를 조장해 광주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경고도 함께 보도하는 등 균형 있게 보도했어야 한다.

23년 오피니언-칼럼은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 다양한 칼럼이 게재되고 있어 인기가 많다. 간혹 데스크 칼럼에 밀려 원고가 과다하게 편집된 경우가 보인다. 글의 앞뒤 연결이 어색해 편집당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가급적 기고자들의 의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원안을 살렸으면 한다.

◇최선희=광주일보는 칼럼이 강하고, '최진석의 새말 새문' 등 좋은 기획이 많다.

'이홍재 세상만사' 중 '나도 당신처럼 골프나 치고 싶다' <11월 12일자 2면> 칼럼은 결속한 글이 일품이다. 정보원에게 쫓기는 꿈으로부터 40년이나 흘러간 전두환 시절 안기부에 연행됐던 사건을 말하고, 그 트라우마로 잡에서 깨며 전두환씨가 골프 치는 영상을 떠올리는 등 리얼리티를 잘 살려 간추렸다.

'나도 이제 40년 글 감옥에서 벗어나 전두환처럼 골프나 치고

싶다'며 시조 형식으로 마치는 글은 한 편의 영상을 본 듯한 여운이 남는다. 신문을 왜 보는지 알 수 있었던 글이다.

'박진현의 문화카페' 중 '대표도서관, 고정관념을 깨라' <11월 20일자 17면> 칼럼도 재미있게 봤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는문을 쓴 터라 더 공감됐다.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을 착수 중인 지금, 오늘날의 도서관의 행태가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지역민에게 일조하는 광주대표 도서관 설립을 현재 추세를 잘 담아서 응원해 의미 깊게 읽었다.

중앙선데이 제후 연제도 지역성을 벗어나 다양한 무대를 연결해 주고 있다.

◇신일섭=복지재단 대표로서 복지 문제에 관심이 깊어 복지 관련 칼럼과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본다. 최근 고령화 사회 문제가 깊어지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특히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많이 생긴다. 9월 이후 3-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는 일가족 동반자살만 10여건이 넘는다. 복지, 사회 문제를 고민하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절박감이 든다.

최근 11월 이후로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노부부와 40대 세 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우리들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다. 복지계에서는 종종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계가 다가온다.

광주일보에 게재된 복지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11월 18일자 23면>이라는 기고문은 성북 자살사건이 터진 후 현장감 있게 잘 쓴, 시의적절한 기고문이었다. 아무리 복지 네트워크, 사회안전망을 갖춰도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마을,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의 연대,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강철성='굿모닝 예방' 시리즈가 인상 깊었다. 광주-전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간 코스,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좋은 기사가 많아 유익한 시리즈라 생각한다.

광주-전남에서 열리는 체육대회가 많이 있다. 테니스 종목만 보더라도 매주 경기가 펼쳐지며, 큰 대회가 해마다 52회 열려 시상도 이뤄진다. 이처럼 많은 대회가 있는데도 지방지에서는 지방 체육과 관련된 소식이 많지 않다.

테니스 분야에서만 광주 50개, 전남 30개의 클럽이 있고, 광주 5000-6000명, 전남 3000-4000명으로 총 1만여명의 동호인이 있는데도 지방지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다른 신문에서 하지 않는 만큼 광주일보에서 소개해 줬으면 한다. 테니스뿐 아니라 축구, 배구 등 경기도 매주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 경기들이 소개되면 독자에게도, 협회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용태=광주일보는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문화·예술, 인문학 관련 기사들이 유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조인으로서 법조 관련 기사를 살펴 보자면, 민간공원 투자 관련 수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등 두 사건이 크게 두드러졌다. 전두환씨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최근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기사 쓰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취재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최원순-현덕신씨의 삶을 다룬 기획 기사 '의술과 독립운동...남도의 빛 더하다' <10월 24일자 17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재조명 해야 한다는 기사 등 시의적절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김치타운·F1경기장 투자 열세 남비 없도록' <10월 24일자 23면>이라는 제목의 사실은 최근 예산철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다. 광주시가 김치타운을 조성한다며 250억 원을 들여 남구 임암동 일대를 매입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기사였다. 추경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리=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